

The Deloitte logo is positioned in the top left corner.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slide is a vibrant, abstract composition of concentric, overlapping circles in shades of orange, red, and yellow, creating a tunnel-like effect. In the center of this tunnel is a bright green circular area, and within that, a smaller, clear glass sphere containing several smaller, colorful bubbles.

Deloitte.

불확실한 세무 & 관세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2025 아시아태평양 세무 & 관세 복잡성 서베이

From the AP Tax Complexity Series | 5th Edition



김지현 파트너

세무자문부문 리더
한국 딜로이트 그룹

02 6676 2434

jkim@deloitte.com

세무 및 관세 전략은 이제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새로운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무 및 관세 환경의 복잡성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새로운 경영 환경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공급망 재편, Pillar 2 도입 논의 확산에 더해 AI 기반 규제 집행과 데이터 중심의 세무 행정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한층 정교하고 민첩한 대응 역량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번 ‘2025 아시아태평양 세무 및 관세 복잡성 서베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기업들은 가격 전략 조정과 비용 통제를 단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재편과 거래 구조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탄력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와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 구축이 세무 조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세무 부서의 역할 역시 단순한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민첩성이 비용 통제, 디지털 역량, 이해관계자 정렬을 연결하는 핵심 프레임워크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세무와 관세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어젠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Contents

개요	04
방법론	12
핵심 서베이 결과 및 분석	14
딜로이트 제언	30
서베이 응답자 정보	38
부록	44
Contact	47

개요





『2025 아시아태평양 세무 & 관세 복잡성 서베이』는
전례 없는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세제 개편, 관세 불확실성, 디지털 보고 의무, 이해관계자 기대 변화가 맞물리며
기업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비용, 세무, 규제 준수는 더 이상 백오피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략적 변화의 촉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보고서는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AP) 세무 복잡성 서베이’ (AP Tax Complexity Survey) 다섯 번째
발간본으로, 올해는 관세 분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본 서베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위 임원 및 전문가 3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서베이 하이라이트

1. 가격 조정

최종 해결방안이 아닌 즉각적인 대응책

2. 현금흐름 영향

전략적 대응의 출발점으로서의 민감성 분석

3. 전략적 정렬

공급망 선정의 새로운 우선순위

4. 운영 준비도

격차 해소를 위한 세무 혁신의 필요성

서베이 주요 결과는 ‘전략적 대응 나침반’(Strategic Response Compass)에 반영되어, 비용 신호, 생태계 조성,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재정렬하고 복잡성을 경쟁우위로 전환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1. 가격 조정

최종 해결방안이 아닌 즉각적인 대응책

응답자의 26%는 관세 변화에 대한 주요 단기 대응 방안으로 가격 조정에 나섰다고 답하였습니다. 추가로 이전가격 조정 패턴을 살펴보면, 11%는 이전가격 관련 내부거래 상세 내역을 변경했으며, 20%는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러한 추세는 복잡성 대응보다 민첩한 대응을 선호하는 경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격 조정은 빠르고 유연하며 운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최종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가장 먼저 선택되는 대응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종의 과도기적 일시적 대응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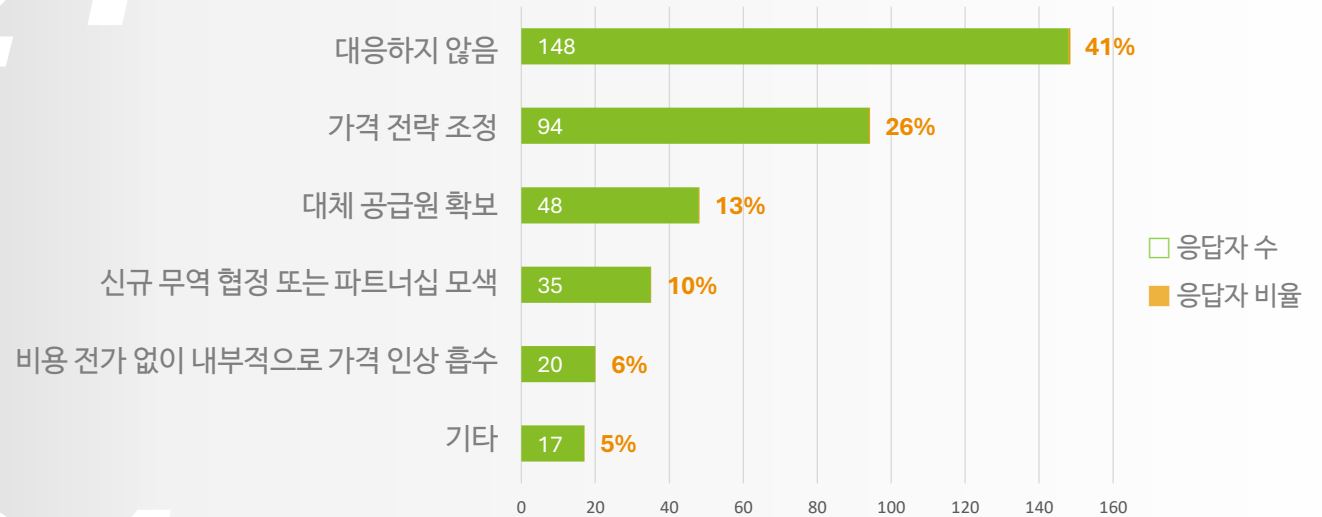
그러나 가격 인상에 장기간 의존할 경우, 특히 수요가 제한된 시장에서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격 조정을 일시적 완충 장치로 활용하면서, 공급업체 다변화, 니어쇼어링, 현지 기반 생산 등 보다 회복력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의 전략적 활용은 더 이상 단순한 비용 전가를 위한 접근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무 관리 비용과 분쟁 해결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환경에서, 이는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전략적 전환의 여지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여전히 첫 번째 방안이지만, 점차 구조 재설계, 공급망 다변화, 시나리오 계획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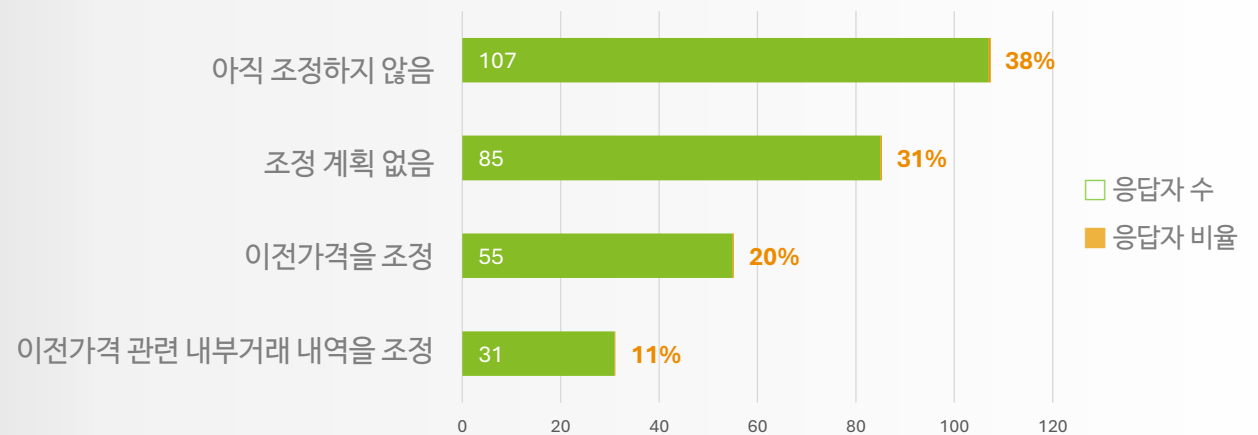
Q1

귀사는 최근 관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362명)



Q4

귀사는 관세 변화에 대응하여 이전가격 또는 관련 내부거래 내역을 조정했습니까?
(응답자 수=278명)



2. 현금흐름 영향 전략적 대응의 출발점으로서의 민감도 분석

관세 관련 비용의 상승폭이 20% 미만일 경우에도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1%에 달했습니다.

시사점

공급망 재편에 대한 관세 비용 상승폭의 임계치를 21~40%로 설정한 기업도 42%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관세 비용에 대한 빠른 대응 추세는 비용 압박이 전략적 우선순위의 매우 강력한 재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전형적인 파레토 분포* 관점에서 보면, 현재 기업들의 재무적 대응력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이 커지자 전체 기업의 80% 이상은 늘어난 비용을 기존 매출 범위 안에서 자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기존 비용의 40% 이내 수준까지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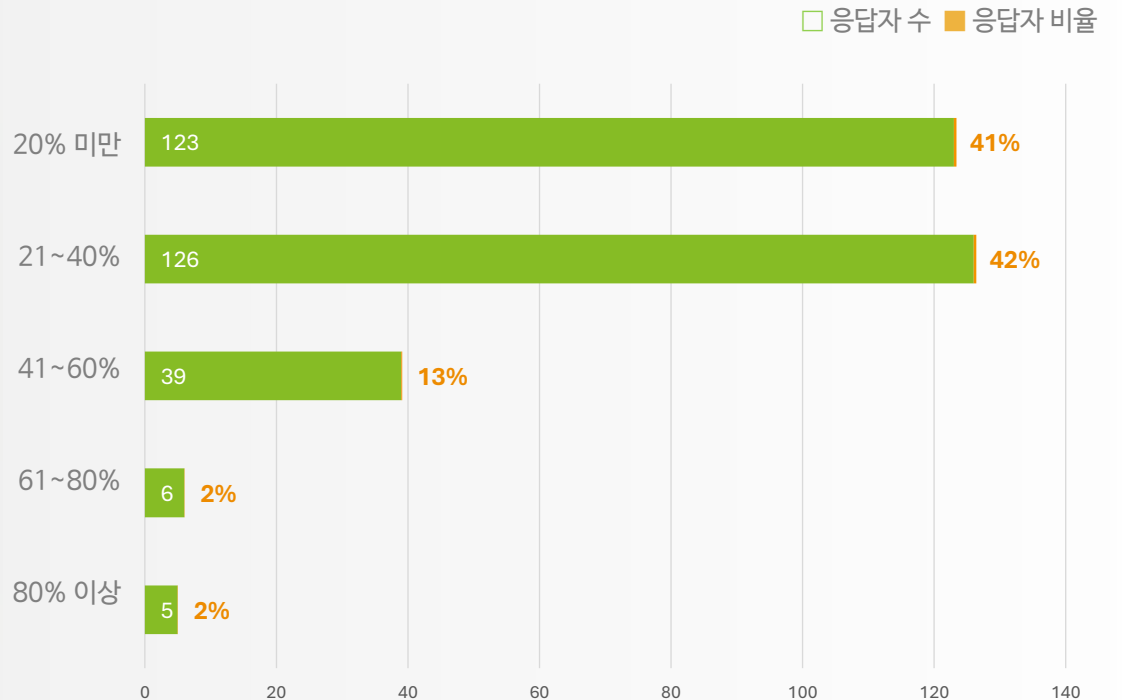
기업들이 비용 충격에 이처럼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은 기업 환경이 중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 변화와 대응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단순한 운영상의 부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파레토 분포(Pareto distribution)는 소수의 원인이 전체 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하는 확률분포이다. 흔히 '80:20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 관련 비용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귀사가 공급망 가치사슬의 근본적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299명)



3. 전략적 정렬 공급망 선정의 새로운 우선 순위

응답자의 약 70%는 공급망 관련 의사결정 시 최저 비용보다 전략적 정렬 또는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과거에는 빠른 대응 수단으로 비용 중심의 해법이 선호되어 왔지만, 이는 더 이상 공급망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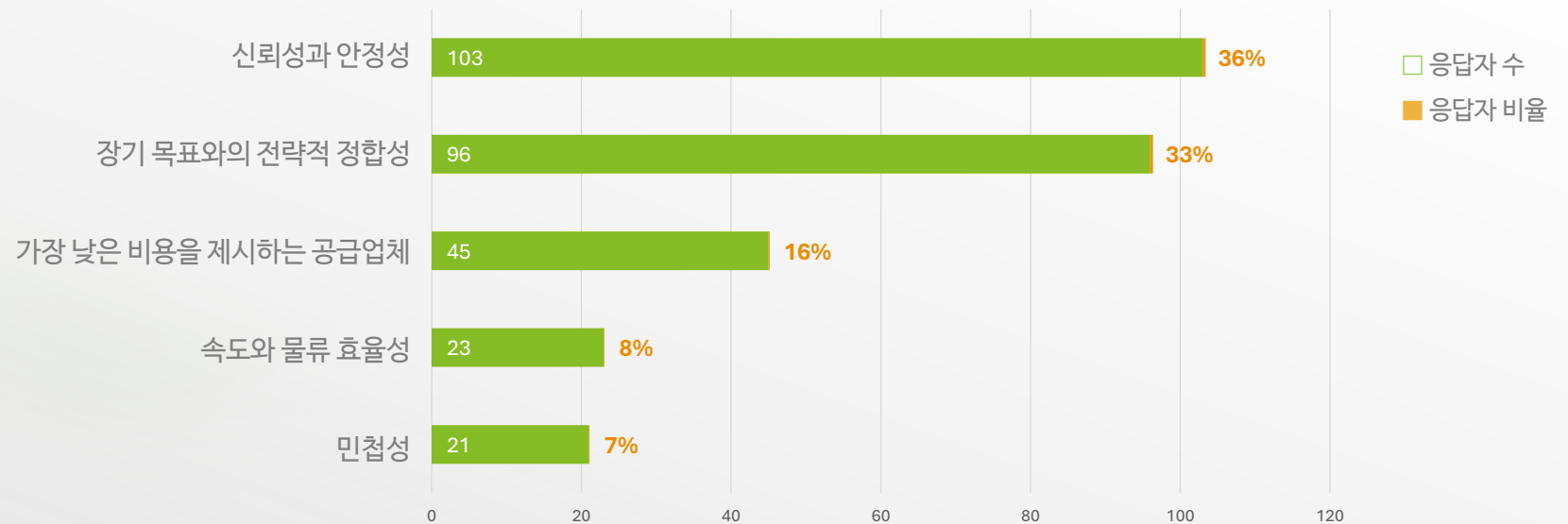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공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은 16%에 불과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규제와 지정학적 환경이 분절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업의 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요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직 내 기능 간 협업, 공급망 생태계 전반 국가 간 규제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기업 회복력을 지탱하는 핵심 연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3

관세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을 조정할 때, 귀사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288명)



4. 운영 준비도

격차 해소를 위한 세무 혁신의 필요성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시적 변동성이 아닌 조직 내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비한 프로세스, 데이터 역량 부족, 인력 스킬 격차가 전체 운영 과제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디지털 전환은 과세당국과 기업 모두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프라 현대화를 통하여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도 정밀한 리스크 파악과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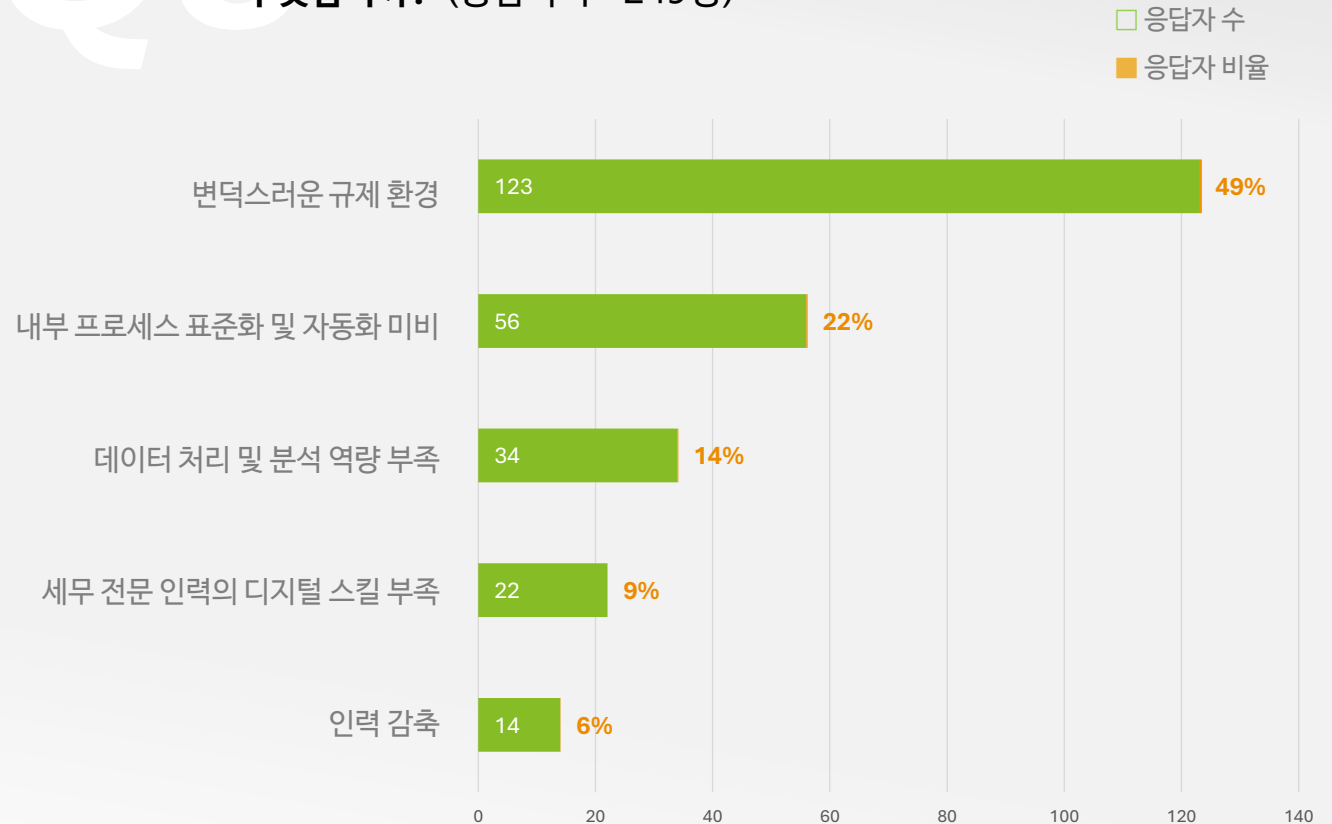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정확성과 세무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표준화와 자동화는 데이터 품질 개선, 규제 준수 강화, 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무 운영 모델 전환이 최고경영진의 주요 어젠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세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249명)



딜로이트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리더들을 위한 **전략적 대응 나침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나침반은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용 신호:** 가격 및 현금흐름 민감도를 변화의 촉발 요인으로 활용
- **전략적 정렬:**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생태계 정렬을 통한 회복력 확보
- **실행 역량:** 디지털 및 운영 준비 강화를 통한 전환의 핵심 동력 확보

민첩성과 회복력은 여전히 핵심 전략 요소이며, 위의 세 가지 핵심 축과 맞물려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비용 신호를 조기 경보로 활용하고, 비용 구조를 넘어 생태계를 정렬하며, 디지털 역량을 전략의 중심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은 불확실성을 단순히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 변동성을 통찰과 추진력,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정렬 (Finding 3)

공급망과 이해관계자 생태계 정렬을 통한
회복력 확보

비용 신호 (Findings 1 & 2)

가격 및 현금흐름 민감도를 변화의 촉발
요인으로 활용

실행 역량 (Finding 4)

디지털 및 운영 준비도를 강화를 통한
전환의 핵심 동력 확보

전략적 대응 나침반

서베이 방법론



서베이 방법론

이번 서베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재 기업의 고위 임원 및 전문가 3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응답자는 한국과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시장 전반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폭넓고 다층적인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38페이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는 기존 고객 네트워크 내 적격 대상자에게 발송한 공식 이메일 초청과,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링크트인(LinkedIn) 공개 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모집하였습니다. 학계 등 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응답자도 접수됐으나, 연구의 일관성과 분석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분석 데이터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디지털 환경에 맞춰 간결하고 직관적인 응답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문 구조는 명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응답자들이 간결한 형식 안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분석은 정량적 설문 결과뿐 아니라 고객과의 논의, 시장 관찰, 딜로이트의 동시 진행 연구에서 도출된 정성적 인사이트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넓은 전략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을 조명하는 동시에,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리더들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서베이 핵심 내용 및 분석





이번 챕터에서는 개요에서 제시한 핵심 인사이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문 결과를 ▲ **안정성 확보 노력** ▲ **높아진 비용 민감도** ▲ **회복탄력성과 민첩성의 중요성 강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설문 참여자들의 실제 응답을 함께 반영해 현장의 시각을 담아냈습니다.

이 같은 구성은 핵심 결과에서 세부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제공하며, 독자들이 올해 서베이 결과가 **‘무엇’ (what)** 인지뿐 아니라 **‘왜’ (why)** 그러한 결과가 도출 됐는지 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I. 새로운 우선순위로 떠오른 안정성 확보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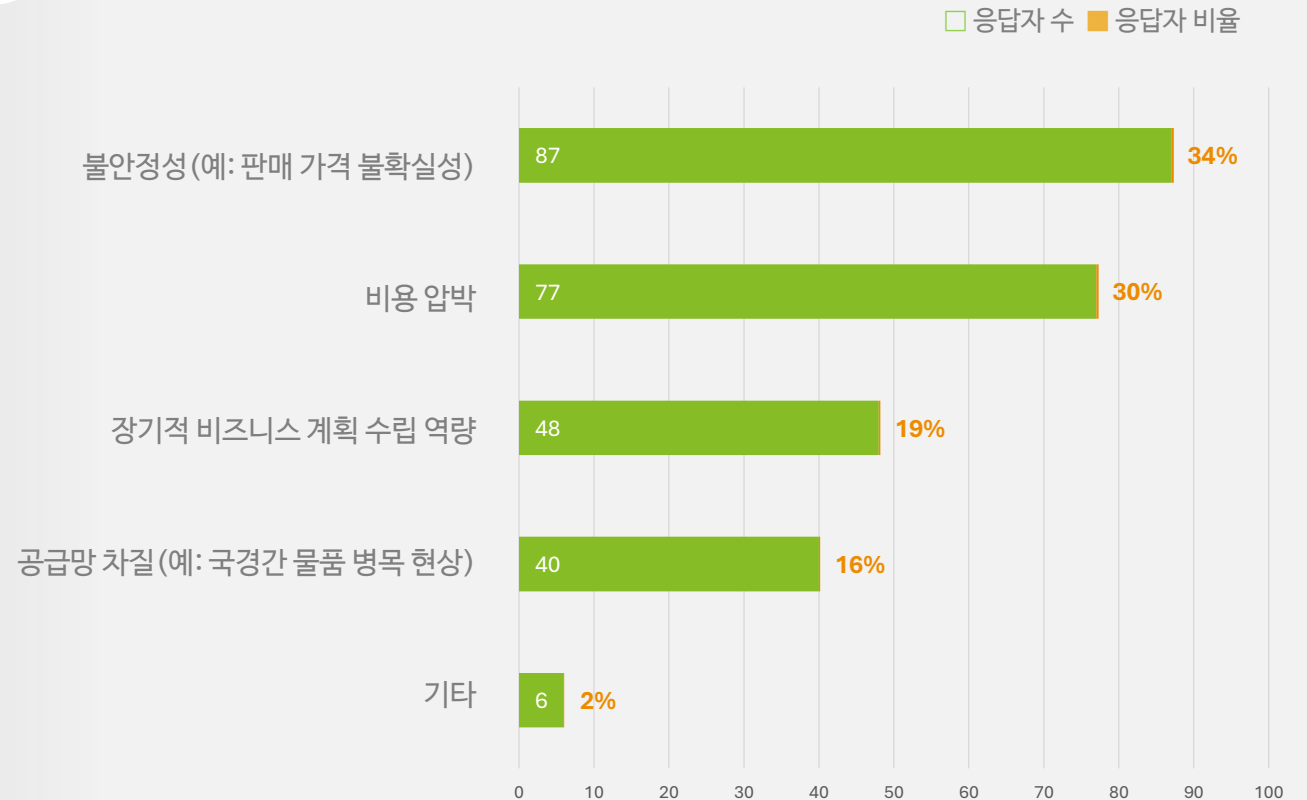
지난 3년간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세무 복잡성 서베이¹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세법 변화의 예측 가능성 ▲세법의 복잡성 ▲세법 해석 및 집행의 일관성 등 세 가지 항목의 중요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매년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투표하였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환경이 기업의 세금과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질문하였습니다. 특정 이슈 하나가 압도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응답자의 34%는 ‘불확실성’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기업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가 ‘안정성 확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습니다.

1. Deloitte, "Risk, uncertainty and opportunity in a changing tax landscape—2014 Asia Pacific Tax Complexity Survey", 2014; Deloitte, "Shifting sands: risk and reform in uncertain times—2017 Asia Pacific Tax Complexity Survey", 2017; Deloitte, "2021 Asia Pacific Tax Complexity Survey", 2021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 속 세금 및 관세 이슈와 관련해 귀사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258명)



I. 1. 누적되는 관세와 보복관세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국가별 세제 설계와 집행 방식이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주요 사안이었으나, 이제는 국제 경제·정치·세제 질서 전반의 변화 자체가 더 큰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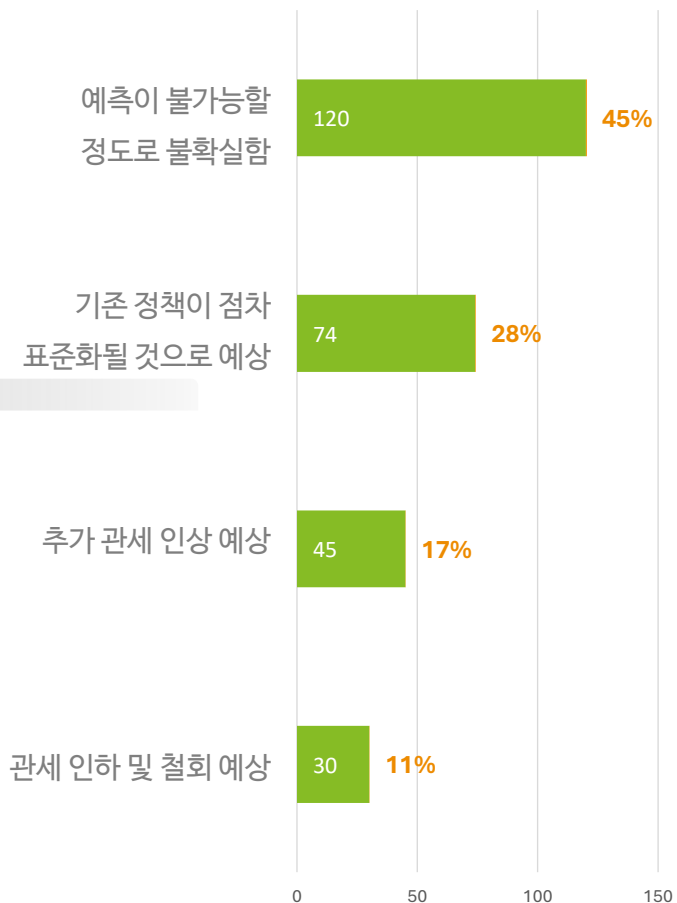
특히 2025년 2월 이후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대규모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해당 관세 인상은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광범위한 품목에 추가 관세가 적용되자, 유럽연합(EU)·캐나다·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보복관세, 수출통제, 우회수출 조사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일부 조치는 협상을 거치며 철회 또는 유예되었으나, 상당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와 넓은 범위, 높은 강도로 전개되는 관세 정책 변화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유지돼 온 글로벌 통상 질서와 기업들의 기존 가정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45%는 향후 12~24개월 동안 무역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망을 제시한 응답자들 역시 대체로 관세 인상이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향후 관세율 인하나 철회를 예상한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이는 향후 통상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신중하고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기업들은 높은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만, 국가 간 정책 충돌과 규제 경쟁은 오히려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중첩된 규제, 갑작스러운 관세 변화, 국가별로 파편화된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귀사는 향후 12~24개월 동안 무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269명)

□ 응답자 수 ■ 응답자 비율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지면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관세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41%는 아직 의미 있는 운영 구조 변화에 나서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2025 글로벌 세무정책 서베이’(Global Tax Policy Survey)²에서는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 장벽 확대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답변 비율이 4%에 불과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두 조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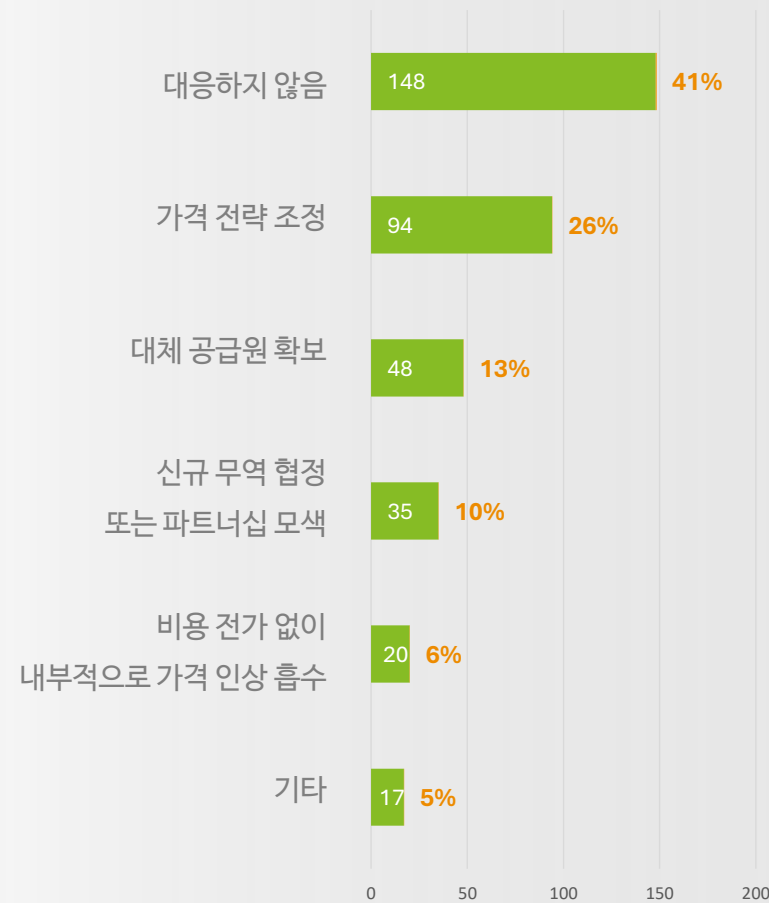
이는 미국 주도의 급격한 관세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 보복 조치의 확산이 기업들의 단기 전망 능력을 약화시킨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가 일상이 되고 향후 방향성 예측마저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보다 가격 인상 같은 단기, 저비용 대응이나 현상 유지 전략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글로벌 통상정책 방향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기업들도 단순 대응 차원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민첩성을 내재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전략과 연계된 시나리오 플래닝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새로운 정책 환경에 적응하고 균형점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인수합병(M&A)과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에서는 세금과 관세 이슈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Deloitte, “2025 Global Tax Policy Survey | Deloitte”, 2025

귀사는 최근 관세 변화에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362명)

□ 응답자 수 ■ 응답자 비율



2. 커지는 조세 분쟁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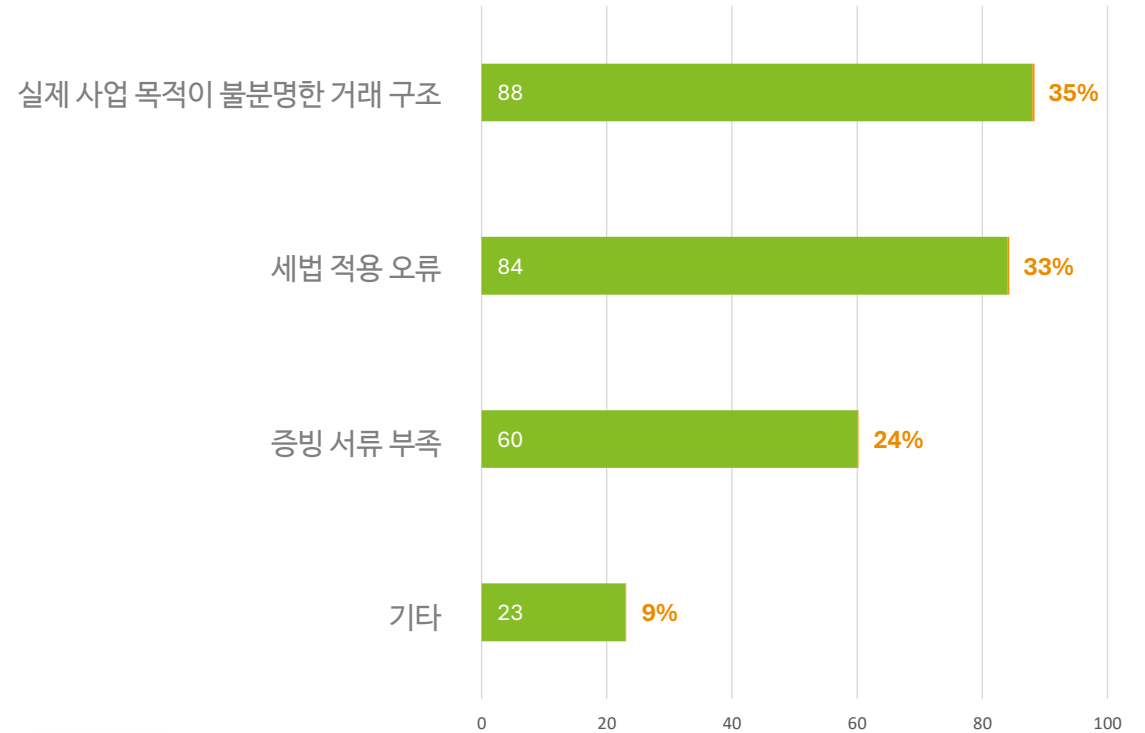
기업들이 직면한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은 심화되는 조세 분쟁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³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높은 국가 부채와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 일부 국가의 국방비 확대 등 새로운 재정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수 확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수입 확대 압력이 커지면서 세무 행정 환경 역시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규제 환경의 변동성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에 육박하였습니다.

조세 분쟁은 발생 빈도는 높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 부담과 평판 훼손, 신용등급 영향 등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고영향·저빈도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5%가 '실제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 구조'를 가장 큰 조세 분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이어 33%는 '세법 적용 오류'를 주요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3. OECD, "Tax Policy Reforms 2025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September 11, 2025

조세 분쟁 발생 시 귀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255명)

□ 응답자 수 ■ 응답자 비율



현장의 분위기도 이 같은 결과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관세가 추가되고, 경제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 변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투명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세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규제 당국의 감독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협의와 조정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세무당국은 세무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Q&A) 제공, 세무 규정 위반 시 제재 기준 통일, 일부 도시에서의 사전 세무판정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세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세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부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는 방대한 세무·비세무 데이터를 디지털 기술로 수집 및 분석하는 역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복잡한 거래를 추진하기 전에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사전 세무판정, 세무자문 기반의 선제적 당국 협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는 향후 조세

분쟁 위험을 일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충분한 증빙 확보는 세무 방어에 핵심 전제조건이며, 디지털 도구는 기록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4명 중 1명이 '증빙 서류 부족'을 조세 분쟁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이전의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과거 거래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디지털 도구는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거래 데이터 수집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복잡한 세무 방어에 필요한 사업 목적과 의사결정 배경까지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들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넘어, 데이터와 세무 방어 논리를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인사이트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거래 데이터뿐 아니라 사업적 의사결정 배경까지 함께 기록·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문서화의 일관성과 추적 가능성,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I. 3. 글로벌 조세 개혁의 진전

지난 10년간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한 국제 조세 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왔으며, 기존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1.0 체계에서 BEPS 2.0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 산업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국제 조세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상을 이어왔고, 2021년에는 Pillar 2(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국제 조세 개혁이 계속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재계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아시아태평양 세무 복잡성 서베이’⁴에서는 Pillar 2 규정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초창기 설계 과정임을 고려하면 긍정/부정/중립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은 GloBE 규정(IIR·UTPR)과 적격 국내최저한세(QDMTT)를 포함한 Pillar 2 규정을 자국 법률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OECD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GloBE 규정 또는 QDMTT 도입을 시행했거나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⁵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Pillar 2 도입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Pillar 2가 실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글로벌 차원의 전면 도입 가능성에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Pillar 2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확신한 응답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4. Deloitte, “2021 Asia Pacific Tax Complexity Survey”, 2021

5. OECD, “OECD Secretary-General Tax Report to G20 Leaders (G20 South Africa, November 2025) | OECD”, November 22,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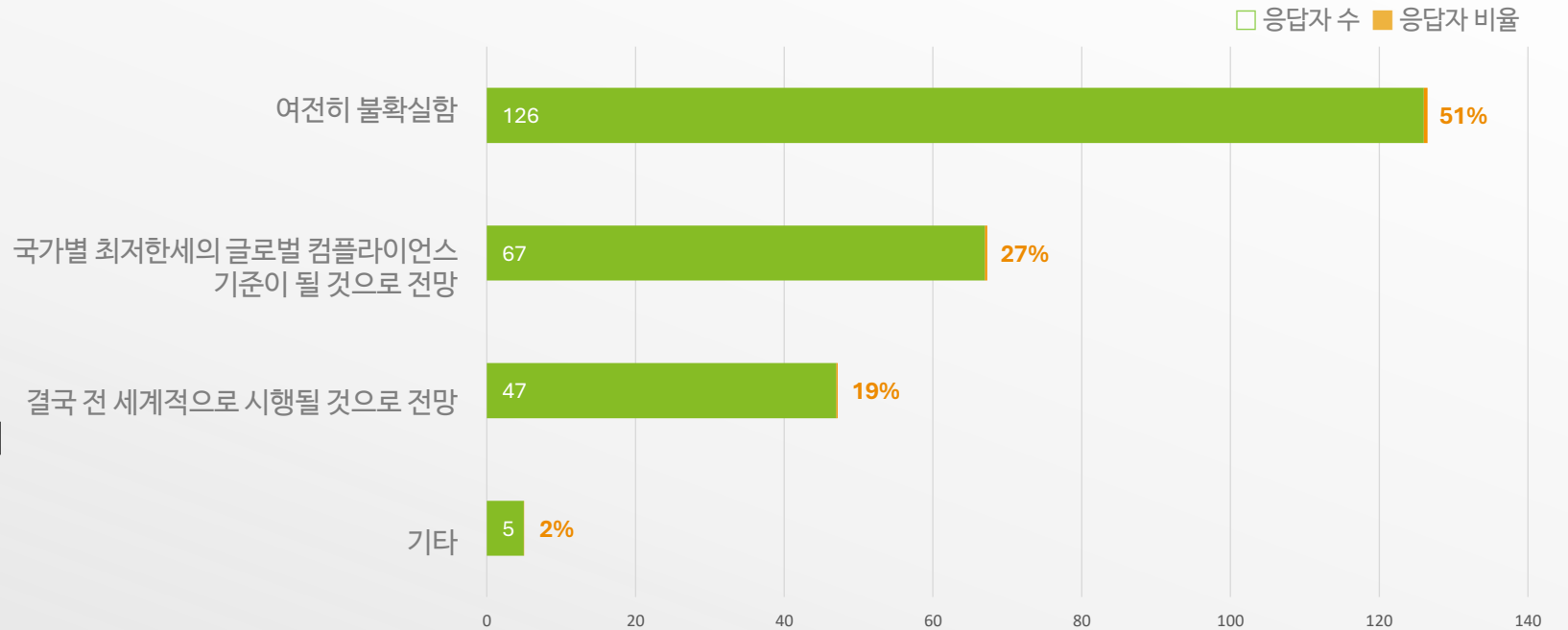
이 같은 회의론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작용하였습니다. 첫째, Pillar 2 체계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기업 의사결정자들조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도입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Pillar 2의 글로벌 시행은 각국의 협력과 조율이 선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마다 세제 정책 우선순위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속도와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적다는 인식도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세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에 동시에 직면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국 내에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QDMTT 도입을 우선시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7%가 Pillar 2 시행이 사실상 '국내 최저한세 중심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는 GloBE 규정의 국제적 공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의 국내 최저한세가 다국적기업의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규제 대응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다국적기업(MNE) 입장에서는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Pillar2 규정이 단순히 세금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고, 세무 관리 복잡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 비용 역시 세무 전략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내 부서 간, 지역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솔루션은 최신 세무 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세무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Pillar 2 도입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245명)



II. 어느 때보다 높아진 기업들의 비용 민감도

I.
II.
III.

1.

가격 조정 최종 해결방안이 아닌 즉각적인 대응책

가격 인상은 여전히 관세 인상애 따른 비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가장 즉각적인 대응 수단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9월 중순 기준 전체 응답자의 41%는 아직 큰 변화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26%는 가격 조정을 가장 우선적인 단기 대응 방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대체 공급원 확보(13%)를 택한 비율의 두 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6%에 그쳤습니다.

딜로이트의 '2025 글로벌 세무정책 서베이' (Global Tax Policy Survey)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비용 민감도는 단순한 재무 지표를 넘어 기업 전략의 핵심 반응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비용을 단순히 관리 및 최적화해야 할 고정 변수로 보지 않으며, 비용 변화를 사업 구조 재편, 운영 방식 조정, 부서 간 협업을 촉발하는 핵심 신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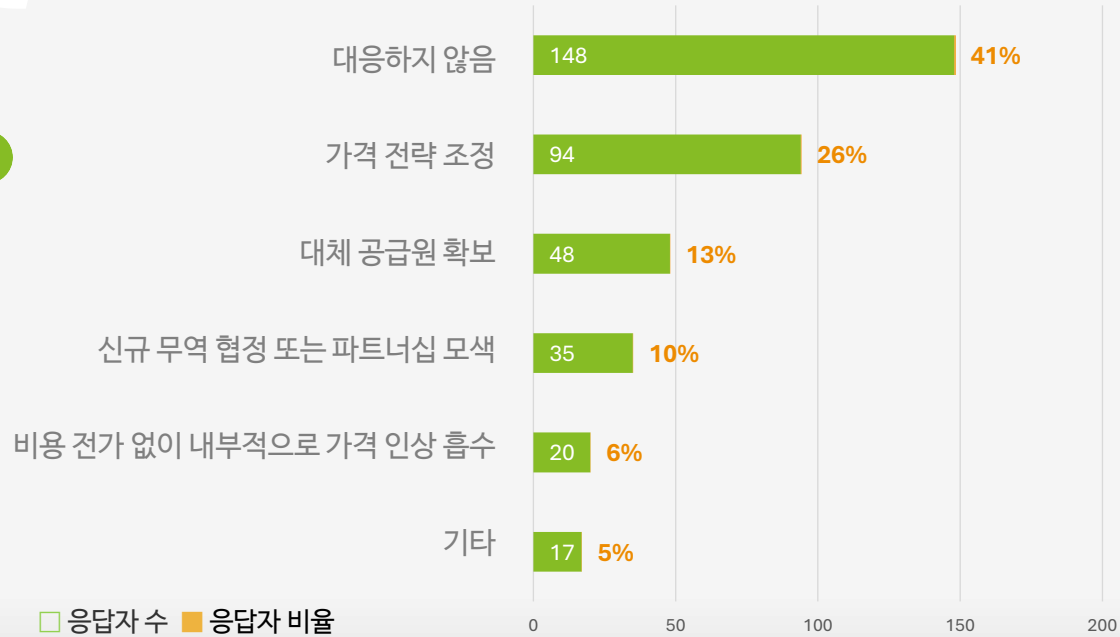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은 비용 관리 접근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 기능의 역할도 한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전략, 세무 운영, 조세 분쟁 리스크, 현금흐름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무 이슈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응답 기업들의 대응 방식은 다양했지만, 가장 많은 기업(29%)이 가격 인상을 선택하였습니다. 생산기지 이전(16%)과 수출시장 전략 재편(16%) 역시 주요 대응 전략으로 나타났습니다.⁶

관세 변화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1%가 의도적으로 가격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으며, 38%는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실제 대응에 나선 기업들 가운데 약 3분의 2는 계열사 간 거래가격 조정을 선택했고, 약 3분의 1만이 거래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택하였습니다.

6. Deloitte, "2025 Global Tax Policy Survey | Deloitt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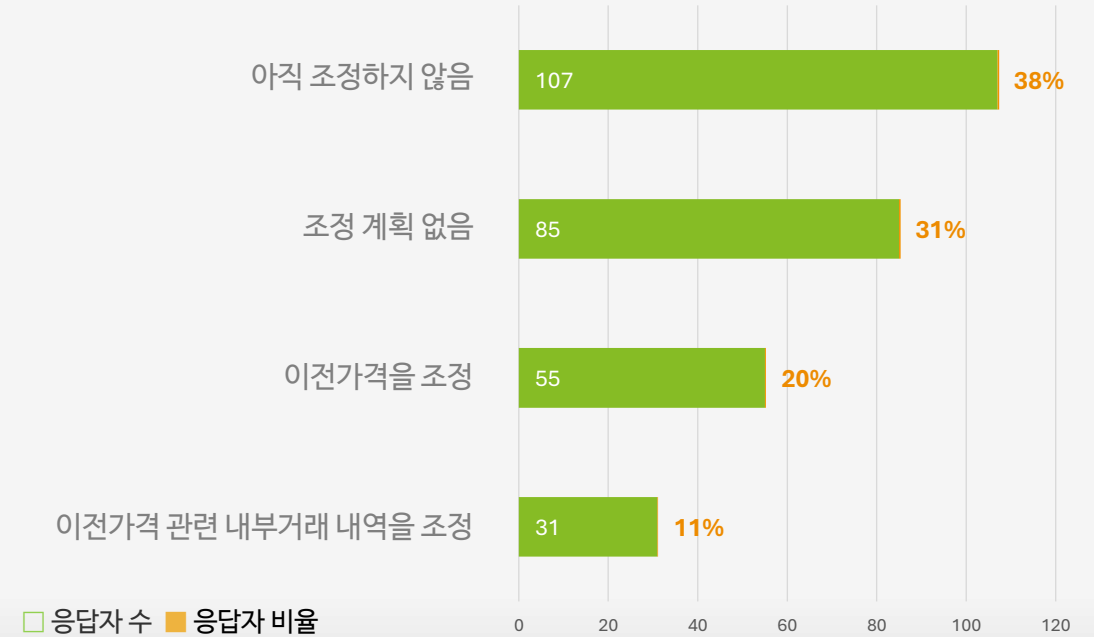
Q1. 귀사는 최근 관세 변화에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362명)



이는 기업들이 복잡한 구조 개편보다 빠르고 유연한 대응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격 조정은 실행 속도가 빠르고 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되는 대응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라기보다 일시적인 완충 장치에 해당합니다. 가격 인상에 장기간 의존할 경우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격 조정을 통해 단기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공급처 다변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역 기반 생산체계 구축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전략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은 단순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조 전환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4. 관세 변화에 대응하여 이전가격 또는 관련 내부거래 내역을 조정했습니까? (응답자 수=278명)



이 과정에서 이전가격 조정 역시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주요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 변경이나 비가격 요소 조정 등 이전가격 관련 내부거래 내역을 조정하려면 세무·법률·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하며, 이는 최종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전가격 조정은 단순히 세금이나 관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은 전체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 각 계열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을 명확히 구분한 뒤, 이에 기반한 정상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수합병(M&A)과 같은 거래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Businesses Are More Sensitive To Cost Than Ever

2. 세무 관리 비용 컴플라이언스 부담에서 전략적 투자로

기업들의 비용 민감도는 이제 관세나 세금 부담 자체를 넘어 세무 관리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규제 복잡성 증가, 디지털 보고 의무 강화, Pillar 2와 같은 글로벌 조세 개혁 시행 등의 영향으로 세무·관세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운영 비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 통제를 위해 디지털 솔루션, 공유서비스센터(SSC), 중앙집중형 세무 운영 모델(내재화·아웃소싱 포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기 대응이자 동시에 장기 전략에 해당합니다. 한편 기업들은 변화하는 관세 정책 모니터링, 공급업체 자격 관리, 신규 등록·신고 의무 대응 등 당장의 규제 부담에 대응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 조직 자체를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서비스 허브 형태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제 딜로이트의 ‘2025 아시아태평양 CFO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자동화 확대 계획을 밝혔으며, 33%는 공유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하였습니다.⁷

이번 서베이에서는 세무 운영 효율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외부 요인과 내부 운영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꼽았다는 점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규제 환경의 변동성이 주요 부담으로 꼽혔고, 내부적으로는 운영 효율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인력 감축을 가장 큰 세무 운영 장애 요인으로 지목한 응답은 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세무신고, 회계 처리 등 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업무를 디지털 도구로 자동화하면서 수작업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무 인력이 전략 수립, 시나리오 분석, 글로벌 거래 구조 설계 등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세무 조직이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중심 기능’에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2%는 내부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자동화 미비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14%는 데이터 처리 역량 부족, 9%는 디지털 스킬 부족을 주요 병목 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별 규제가 서로 다른 다국적기업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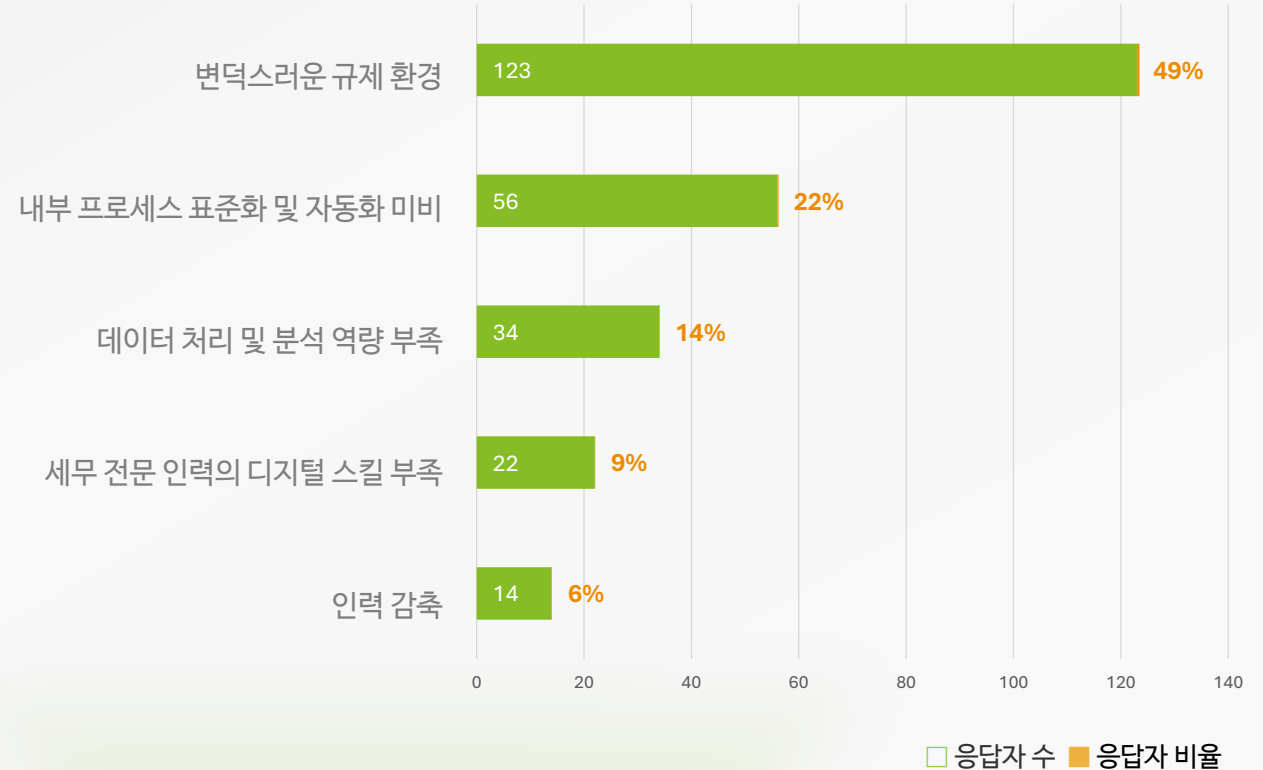
⁷ Deloitte, “APAC CFO 2025 survey report | Deloitte Insights”, 2025

귀사의 세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249명)

디지털 기반 규제 체계가 빠르게 확산되며 기업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 방식의 컴플라이언스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회복탄력성과 민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기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상호운용성이 높은 세무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황과 디지털 성숙도에 따라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디지털 대응 역량이 이제는 컴플라이언스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내부 세무 관리 비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외부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재무·세무 요구사항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역량은 앞으로도 장기적인 핵심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2. 현금흐름 영향 전략적 대응의 출발점으로서의 민감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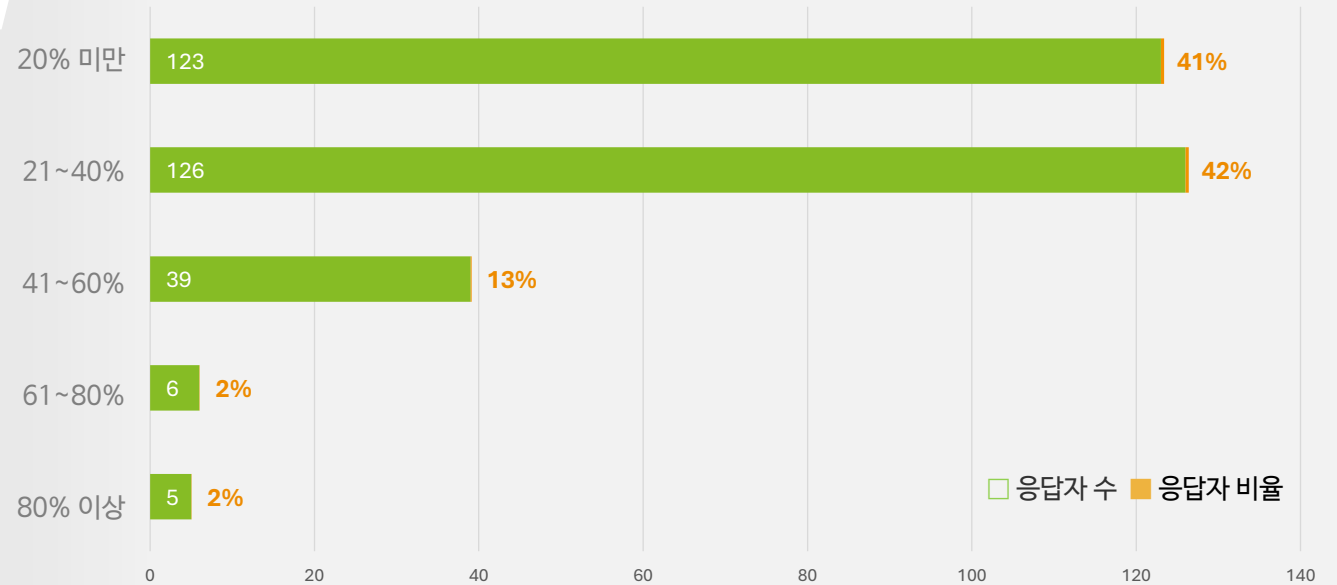
기업들의 높아진 비용 민감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려 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번 서베이에 따르면 관세 관련 비용의 상승폭이 20% 미만일 경우에도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1%에 달했습니다. 이어 관세 비용 상승폭의 임계치를 21~40%로 설정한 기업도 42%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관세 비용에 대한 빠른 대응 추세는 비용 압력이 전략적 우선순위의 매우 강력한 재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전형적인 파레토 분포 관점에서 보면, 현재 기업들의 재무적 대응력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관세 부담이 커지자 전체 기업의 80% 이상은 늘어난 비용을 기존 매출 범위 안에서 자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기존 비용의 40% 이내 수준까지 대응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매출 범위 안에서 이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그룹 역시 그룹 내에서는 다시 파레토 형태의 불균형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낮은 비용 충격 허용도는 중요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변동성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단순한 운영상 불편이 아니라 사업 구조 혁신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부는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대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 비용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귀사가 공급망 가치사슬의 근본적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299명)



이 같은 비용 민감도는 저마진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 화학, 기술,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갖춘 공급업체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운영 예산과 유동성 관리 부담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Pillar 2 시행으로 국가 간 세부담 배분 구조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금흐름 예측의 복잡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레토 곡선의 반대편 역시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2%는 비용 영향이 80% 이상 증가할 때에만 구조 재편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수의 고회복력 기업군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시장에서는 공급망 구조가 지나치게 정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비용 자체가 지나치게 큰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공급망 전면 재편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은 대체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안 역시 일정 수준의 비용은 당연히 수반하지만, 공급망 전체를 다시 구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시나리오 플래닝과 공급망 회복탄력성 전략을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세·세무 시나리오를 가정해 공급처, 가격 전략, 거래 구조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성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비용이 곧 제약이자 동시에 전략 변화의 촉매가 되는 시대에 기업의 민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II. 이사회 핵심 의제가 된 회복탄력성과 민첩성을 위한 세무 전략

III.

내부 정렬

1. Tax, 전략을 연결하는 핵심 기능으로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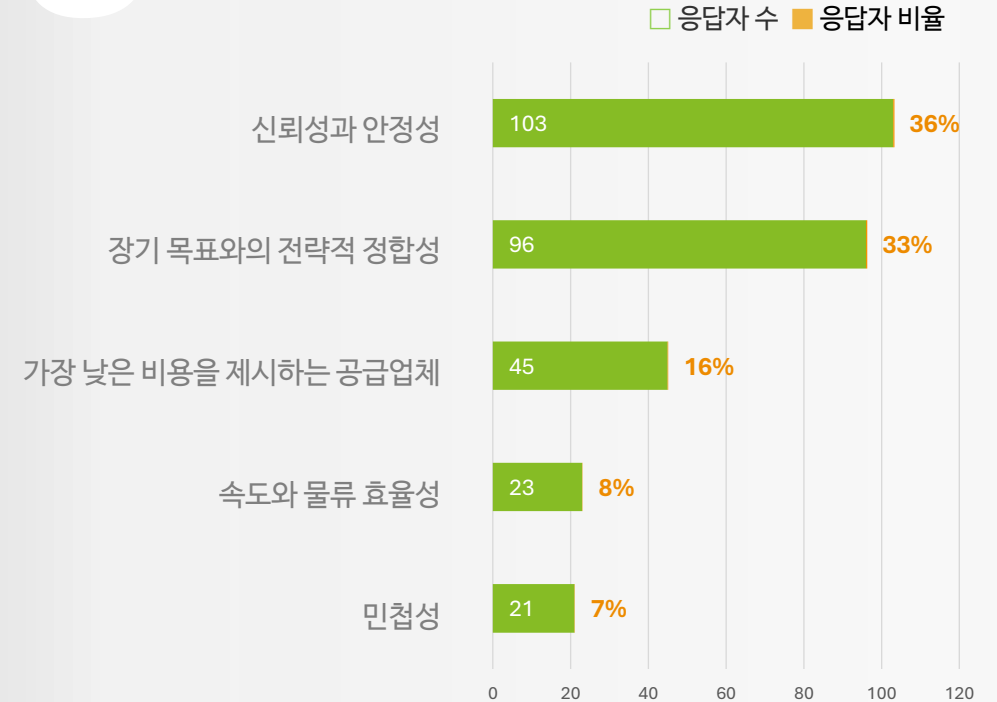
세무 관련 사항은 이제 공급망 재편, 운전자본 관리, M&A 전략 등 거의 모든 핵심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조직은 기존의 사후 지원 기능을 넘어 제조, 영업·마케팅, 재무, 법무, 조달, 인사, 운영 등 다양한 부서와 초기 단계부터 협업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무 기능을 통해 단순 비용 효율화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 목적과 전략 방향까지 함께 조율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협업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세무 조직을 더 이상 단순 대응 조직이 아닌 전략 실행의 핵심 지원 기능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서 간 일관된 문서화와 설명 체계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 작은 운영 변화 하나가 여러 부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협업과 정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3%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장기 목표와의 전략적 정합성'을 핵심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는 '신뢰성과 안정성'(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입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약 70%에 달하는 기업들이 안정성과 전략적 정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무 조직의 부서 간 협업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을 조정할 때, 귀사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288명)



반면 단순 비용 절감 중심의 접근은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관세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가장 저렴한 선택지가 오히려 규제 리스크나 공급망 차질 같은 숨은 비용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회복탄력성 없는 비용 절감이 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갈수록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Tax Strategies Rooting For Resilience And Agility Are Now A Boardroom Priority

2. 규제 당국과의 협업 및 대응 전략

세무 혁신은 기업 내부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세무당국 역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빠르게 추진하며 규제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은 전자신고 (e-filing),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ing), 자동 정보교환 체계 등을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당국은 보다 정교하게 리스크를 파악하고 복잡한 거래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기업들은 Pillar 2 신고, 국가별보고서 (CbCR), 수출통제

신고, ESG 세무 공시 등 점점 더 다양한 보고 의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 발생 단계부터 정확하고 '세무 검증이 가능한' (tax-sanitized)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⁸

이에 따라 세무 조직의 역할도 단순 신고·납부 업무를 넘어 기업 전체 정보 체계 (information architecture)의 설계와 관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보고 채널별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해 규제당국의 추가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

필요한 데이터 수준과 수집 비용, 정보보호 의무 간 균형을 관리해 과도한 정보 노출이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방지

또한 기업들은 자동 데이터 추출, 정제, 검증 기능을 갖춘 디지털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 세무 컴플라이언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딜로이트 제언



세무 및 관세 복잡성 대응을 위한 제언

1. 라이프사이클 기반 접근법 비즈니스 단계별 전략적 대응

산업 특성, 비즈니스 모델, 관세 노출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세 대응 전략 역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실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관세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는 과정이 일정한 '라이프사이클'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격 조정 여전히 가장 먼저 선택되는 방어 수단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업들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가격 조정이나 비용 절감과 같은 비교적 영향 범위가 작은 조치를 우선 활용해 단기적으로 운영 안정화를 시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가격 조정과 직접 연결되는 세무·관세 영향을 우선 점검하고,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 변화는 세전이익과 법인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가격 조정은 이전가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조정과 비용 절감이 소비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함께 예측 및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첩성 내재화와 장기적 공급망 재편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보다 장기적인 전략 목표에 맞춰 공급망에 민첩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는 공급망 재편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업 인수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향후 예상치 못한 관세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복적인 위기 대응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첩성은 단순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대응 나침반' 관점에서 민첩성의 핵심은 시나리오 플래닝에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은 개별 이슈 대응 수준을 넘어, 규제 격차와 운영 제약, 전략 우선순위가 실시간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한 실행 경로를 설계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관세 변동성은 이러한 복합적 상호작용을 잘 보여준다. 관세 변화는 단순히 가격 조정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처 전략, 계약 조건, 시장 우선순위까지 함께 바꿔놓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인상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공급업체 전환, 생산기지 이전, 이전가격 체계 재조정 등과 함께 병행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세무, 법무, 재무, 운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단순히 개별 조직 단위의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Recommendations To Harness The Complexity

2.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역량을 강화하면, 세무 기능을 사후적 컴플라이언스 수행 조직에서 선제적 전략 파트너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글로벌 세제 개편, 지정학적 변화, 보고 의무 확대 등으로 규제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정확성 제고, 전략적 민첩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거버넌스의 부상은 기업이 세무 및 관세 복잡성을 관리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 및 세무 운영을 혁신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 도입 또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 및 기타 비즈니스 기능 전반에서 증가하는 규제 복잡성과 데이터 수집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통합된 기술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수집, 검증, 보고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 실시간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며, 원천 데이터 단계에서부터 '세무 검증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능형 제품 분류 관리, 수출입 신고 데이터 분석, 국가별 관세율 및 무역정책 변화의 실시간 추적 등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 안에 세무·관세 데이터 수집 및 통제 지점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운영 워크플로에 직접 내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컴플라이언스 신고, 장부 관리, 관세 보고, 문서화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노동집약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이는 수작업 부담과 오류율을 줄이고, 실시간 대응력과 데이터 무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와 운영 모델 혁신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는 세무 기능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세무 및 재무 리더들은 공유서비스, 아웃소싱, 핵심 내부 역량을 보다 균형 있게 조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모델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명확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요구는 증가하고, 인재 부족은 심화되며,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자동화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딜로이트의 ‘2025 세무 전환 트렌드’ (2025 Tax Transformation Trends)는 이처럼 ‘최적의 자원 조합’을 통한 전환을 강조하며, 리더들이 규제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와 AI를 우선순위에 두는 동시에 공유서비스센터(SSC) 및 아웃소싱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⁹

이번 서베이 결과도 이러한 시급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0% 이상은 프로세스, 데이터 역량 또는 인력 스킬의 부족을 가장 큰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 모델 혁신은 C-레벨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했습니다.

SSC의 역할 확대, 업무량이 많거나 변화가 잦은 관할권에 대한 선별적 아웃소싱, 정책과 분쟁에 대한 대응 및 구조 설계 등 전략적 영역에 대한 내부 세무 전문성 유지는 점차 확산되는 하이브리드 리소싱 모델의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단순한 효율화 수단이 아니며, 변동성이 큰 규제 환경의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전략적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 전략입니다.

투자 흐름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합니다. 딜로이트의 ‘2025 아시아태평양 CFO 서베이’ (2025 AP CFO Survey)에 따르면 CFO의 38%는 SSC 또는 전문가그룹(CoE)을 확대할 계획이며, 78%는 운영 전반에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¹⁰ 구조적 재설계와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라는 이중 초점은 확장성을 높이고, 간접비를 줄이며, 세무팀이 시나리오 플래닝과 국경 간 구조 설계 등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Deloitte, “2025 Tax Transformation Trends | Deloitte”, 2025
10. Deloitte, “APAC CFO 2025 survey report | Deloitte Insights”, 2025

3. 전사 통합 대응 체계 협업·조율·연결 중심의 전사적 대응

오늘날 세무 및 관세 이슈는 더 이상 단순히 '세무'나 '관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는 세무, 법무, 리스크, 공급망, 재무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다기능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장기적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기능을 넘나드는 협업과 조율뿐 아니라 긴밀한 연결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무 및 관세 정책 분석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복잡성이 수반되는 만큼, 세무 부서가 사업 기획, M&A 검토 및 주요 의사결정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부서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경우 C-레벨 리더들이 복잡한 세무·관세 규정이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전략 수립 과정에 세무 및 관세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화가 상당한 역풍을 맞고 있지만, 기업들의 해외 시장 확장 흐름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운영의 핵심 기반은 효율적인 글로벌 세무 협업 체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체계는 기업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룹 차원의 운영 목표에 맞춰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illar 2 보고 체계를 보면,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본사가 모든 GloBE 보고를 총괄하고 현지 자회사는 데이터 제공만 수행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지 자회사에 GloBE 보고 책임을 위임하고 본사는 조율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분산형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룹 내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든, 글로벌 세무 의무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경 간 협업·조율·연결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4. 건설적 협력

세무당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전 세계적으로 세무 감독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세무당국과의 건설적 협력 관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및 유지하고, 세무 및 관세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컴플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 협의, 일관된 컴플라이언스 이행, 효과적인 대응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접근은 세무 확실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경 간 거래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포함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업들은 사전가격합의(APA)나 사전세무판정(Advance Tax Ruling)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세무 처리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협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세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출 기한, 데이터 세분화 수준, 보고 형식 등 정보 보고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보고 채널 간 데이터와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의 추가적인 검토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무 솔루션은 데이터 수집·검증·보고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에 직면했을 때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적시에 준비하고, 세무당국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조세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와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언들은 올해 설문조사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잡한 세무·관세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성과 회복탄력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비용 신호 △전략적 정렬 △실행 역량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 통합한 ‘전략적 대응 나침반’은 앞서 제시한 라이프사이클 기반 접근, 디지털 투자, 기능 간 협업, 규제당국과의 전략적 협력 전반을 관통하는 실행 프레임워크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호 연결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단기적·사후적 대응을 넘어, 복잡성이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적 회복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더욱 깊은 통찰로 불확실성 돌파

‘2025 아시아태평양 세무 & 관세 복잡성 서베이’는 특정 시점을 진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구조적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스냅샷에 해당합니다.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당시 도출된 핵심 결과와 분석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변동성, 규제 강화, 지정학적 분절화는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영 환경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2026 재무 트렌드’ (Finance Trends 2026)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재무 리더들은 불확실성에 위축되기보다, 회복탄력성 강화, 기술 도입, 전사적 영향력 확대에 더욱 집중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¹¹ 이러한 흐름은 본 설문조사가 전달한 핵심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민감도 관리, 가격 조정, 공급망 정렬, 세무 혁신은 여전히 핵심 대응 전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민첩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역량이며, 동시에 비용 규율,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 정렬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연결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아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첫째, Pillar 2 규정과 관련한 ‘병행 적용 패키지’ (side-by-side package) 세부안이 공개되면서 시장 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관망이나 추측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책 취지는 단순화에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정화 이전까지 오히려 복잡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동시에 주목할 점은 경제와 기업들이 보여준 회복탄력성입니다. 리더들은 이제 혼란을 일시적 변수로 보기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경영 환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후적 컴플라이언스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준비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11. Deloitte, Finance Trends 2026 | Deloitte Global, 2026

2.

둘째, 2026년의 핵심 기술 화두는 AI, 특히 에이전틱 AI (agentic AI)가 될 전망입니다. 세무 및 법무 운영에서 AI의 역할은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자율적 오케스트레이션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규정을 해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단단계 워크플로를 실행하고, 지속적인 인간 개입 없이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선도 기업들은 세무·법무 기능 전반에 에이전틱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업이 얼마나 빠르고 자신감 있게 변화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경쟁 우위가 결정되는 새로운 경쟁 국면을 예고합니다.

AI가 세무 조직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닌, 오히려 인간과 AI의 협업 (human-AI teaming)을 기반으로 정확성, 업무 처리 역량, 전략적 영향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모델이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해보면,

2025년 서베이에서 제시된 환경은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 환경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명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Pillar 2 도입, 그리고 AI 기반 규제 집행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세무 및 관세 대응 민첩성이 각 기업의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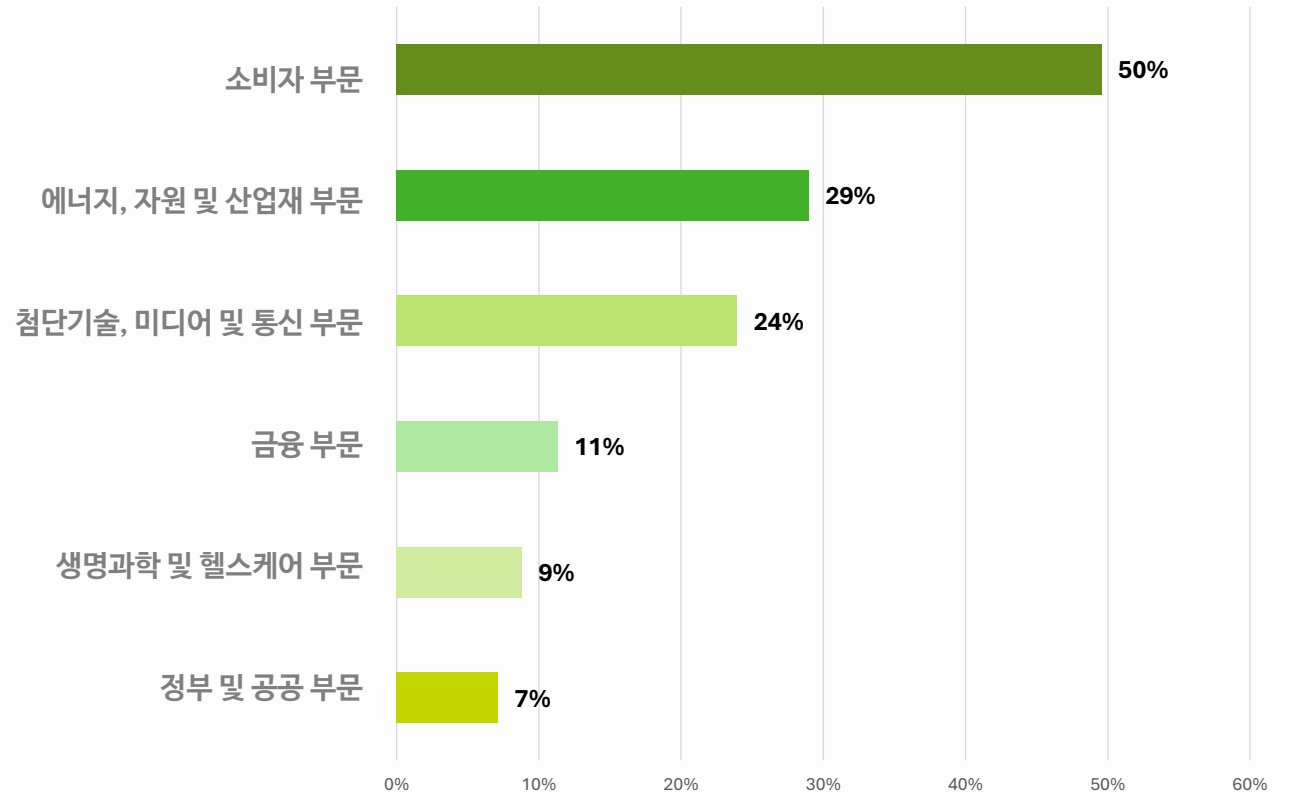
이제 2026년의 핵심 질문은 ‘변화를 추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비용 통제와 디지털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 정렬을 하나의 통합된 민첩성 프레임워크 안에 내재화한 기업만이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확신과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베이 응답자 정보



응답자 구성에 대한 이해는 본 보고서의 인사이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2025 아시아 태평양 세무 및 관세 복잡성 서베이’에는 다음에 소개할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지닌 총 363명의 응답자가 참여했습니다. 인구통계 관련 문항은 선택적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모든 항목의 결과가 전체 응답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본 분석의 기반이 된 응답자들의 지역적, 산업적, 직무적 다양성을 보여주며, 보고서 전반의 전략적 시사점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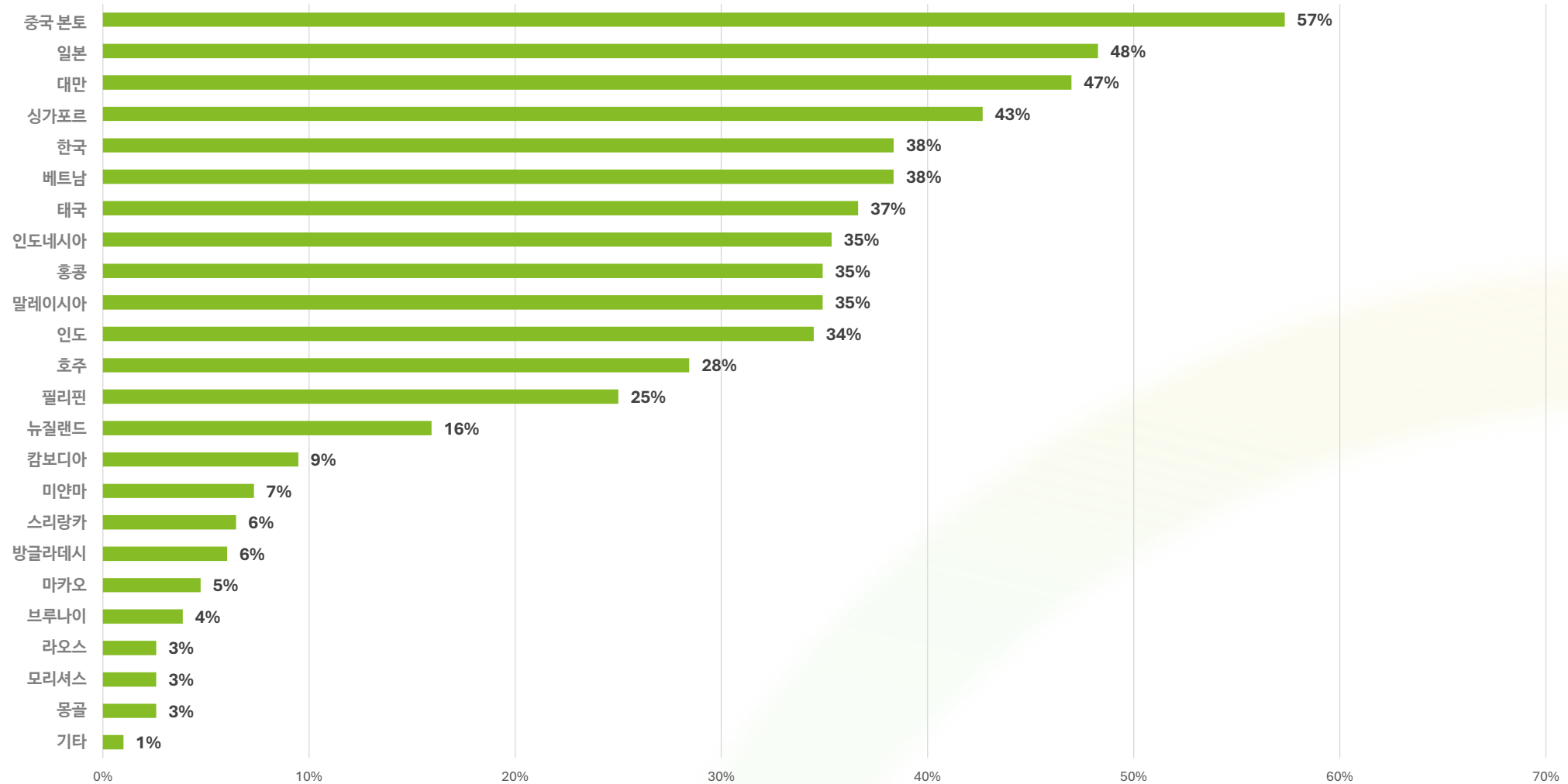
귀사의 주된 산업/업종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 = 238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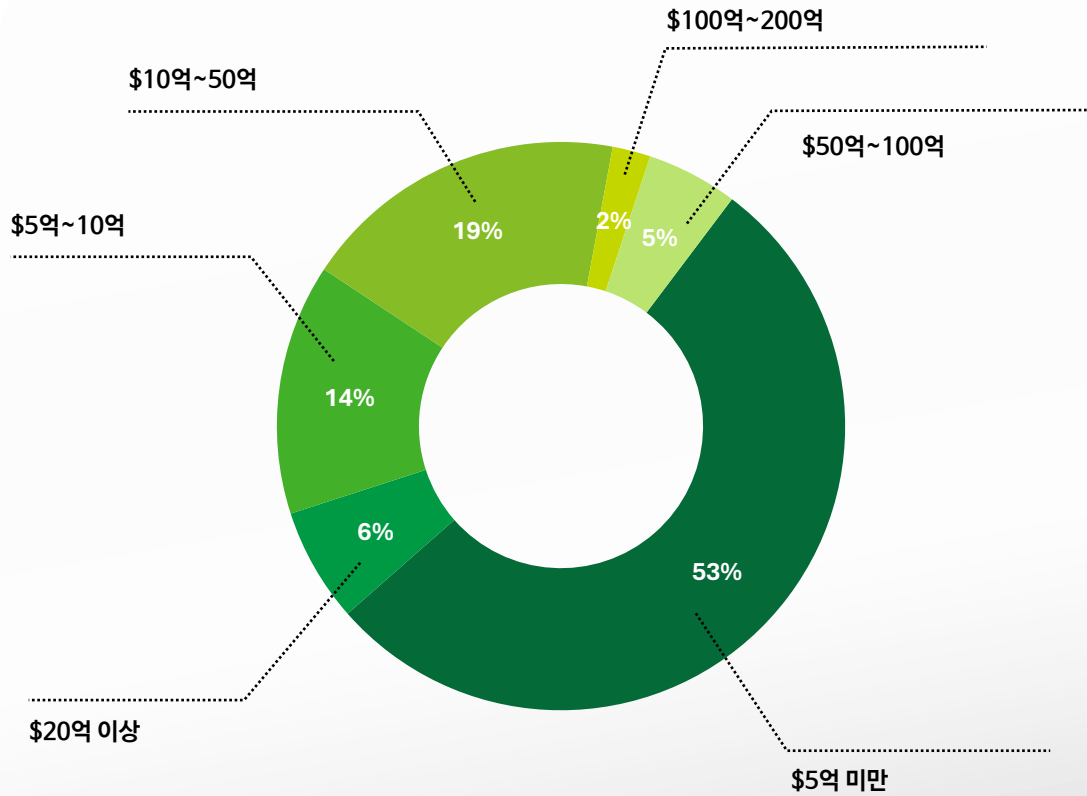
- 1) 산업 및 업종 분류는 딜로이트의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함.
- 2) 본 문항은 각 조직의 주요 산업 또는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일부 응답은 복수의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데이터는 응답자들이 선택한 전체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귀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 및 관할권을 선택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 232명)



● 최근 회계연도 기준 귀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자 수 = 2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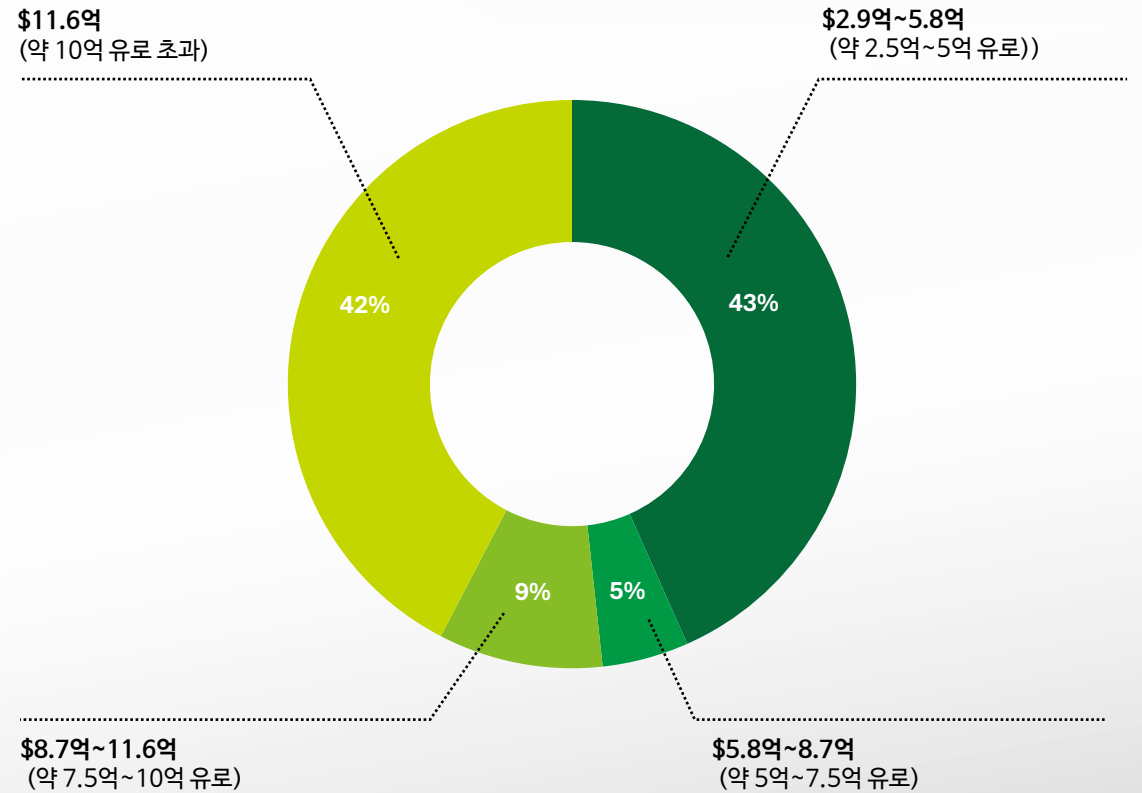
단위: USD



Note: Percentages may not sum to 100% due to rou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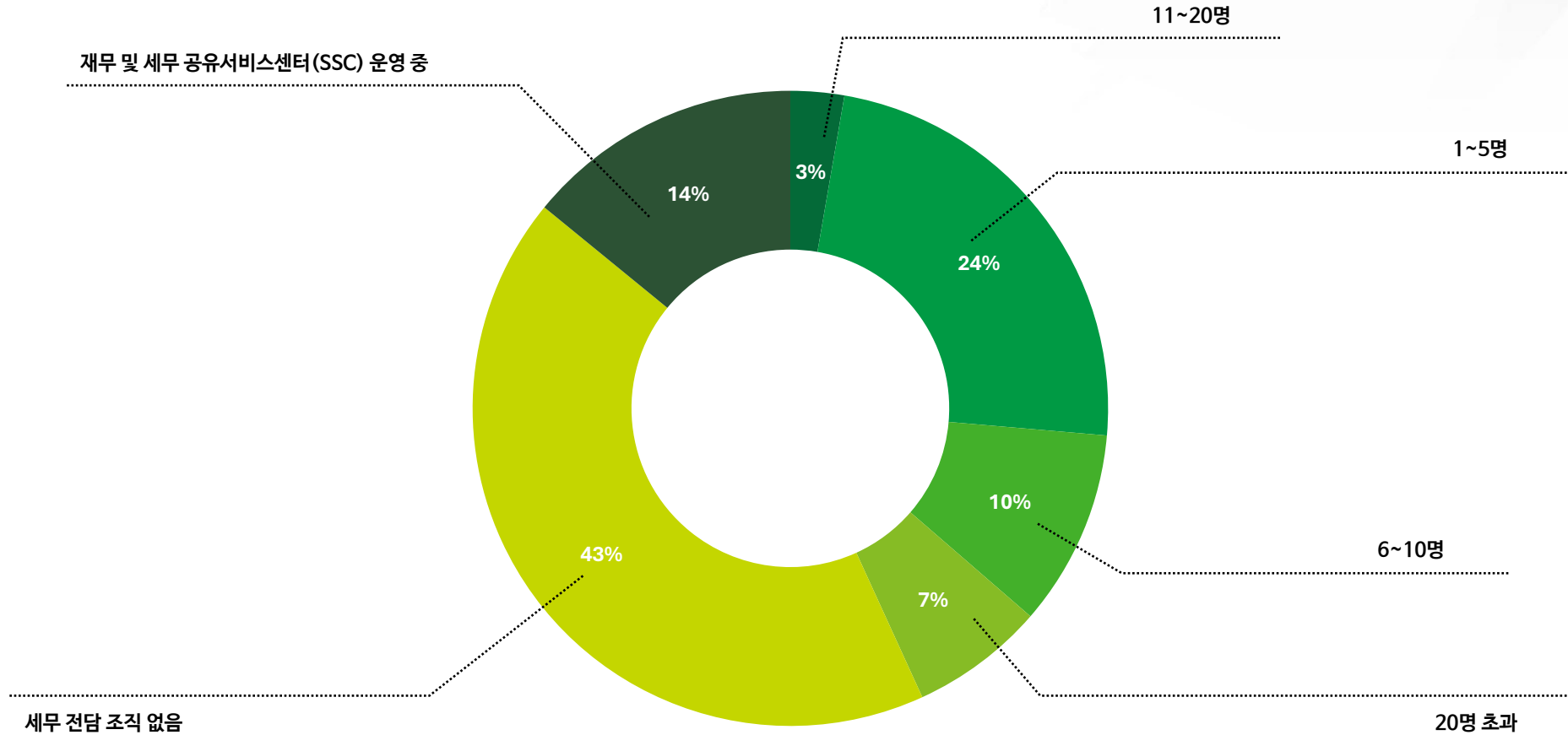
● 최근 회계연도 기준 귀사의 글로벌 연결 총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자 수 = 203명)

단위: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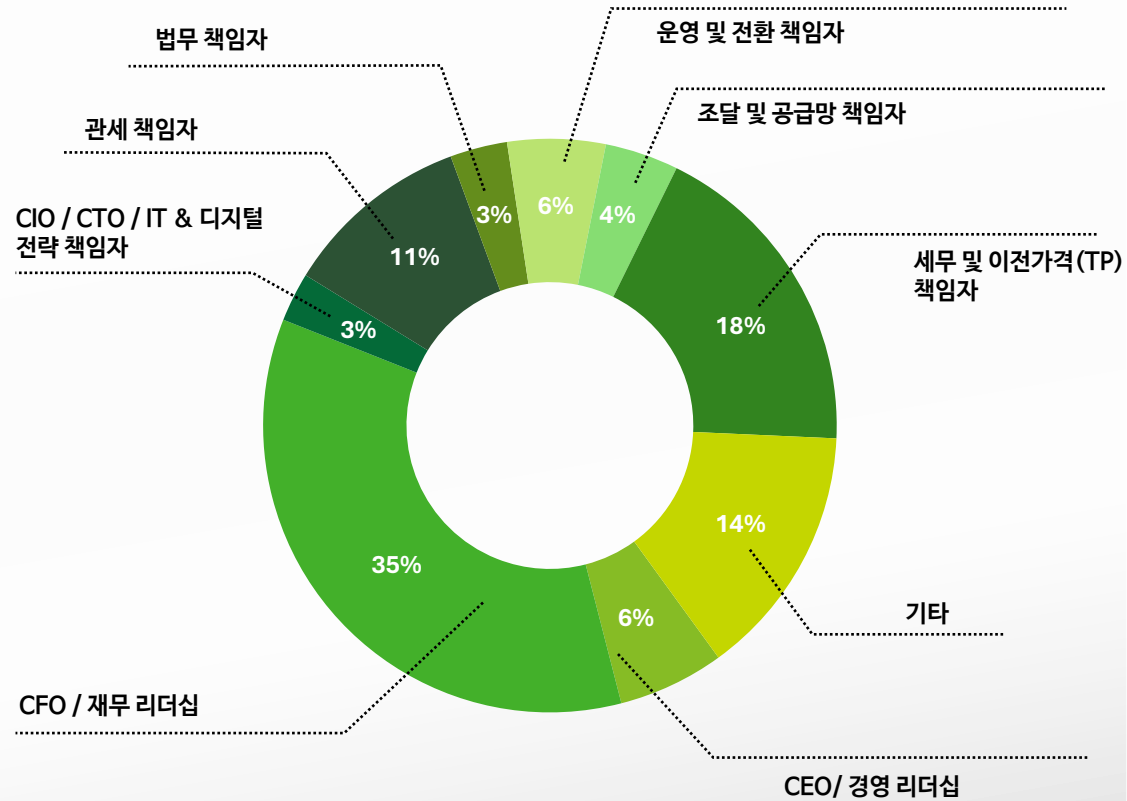
Note: Percentages may not sum to 100% due to rounding.

● 귀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무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자 수 = 2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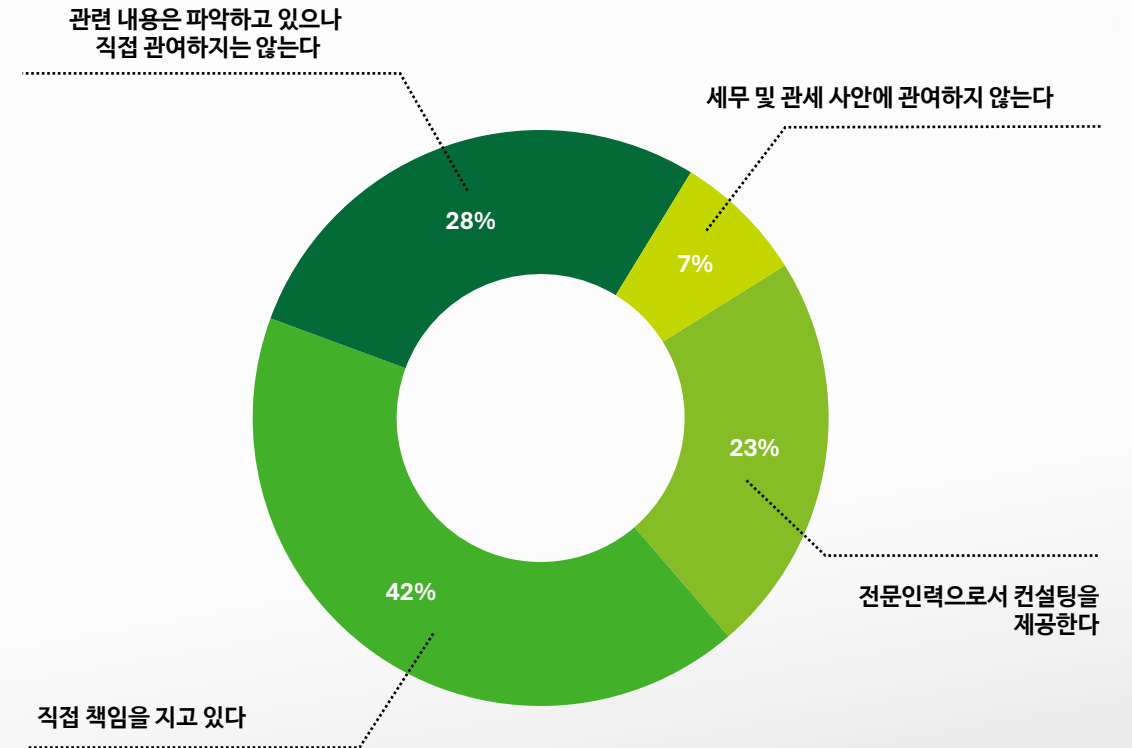


Note: Percentages may not sum to 100% due to rounding.

귀하의 직무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 = 217명)



귀하는 세무 및 관세 관련 비즈니스 전략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 217명)



부록



서베이 질의 내용

1. 귀사는 최근 관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가격 전략 조정
- 대체 공급원 확보
- 비용 전가 없이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 흡수
- 신규 무역 협정 또는 파트너십 모색
- 기타(직접 기재):

2. 관세 관련 비용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귀사가 공급망 가치사슬의 근본적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20% 미만
- 21~40%
- 41~60%
- 61~80%
- 80% 이상

3. 관세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을 조정할 때, 귀사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 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공급업체
- 신뢰성과 안정성
- 속도와 물류 효율성
- 장기 목표와의 전략적 정합성
- 민첩성

4. 귀사는 관세 변화에 대응하여 이전가격 또는 관련 내부거래 내역을 조정했습니까?

- 아직 조정하지 않음
- 조정 계획 없음
- 이전가격을 조정
- 이전가격 관련 내부거래 내역을 조정

5. 귀사는 향후 12~24개월 동안 무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추가 관세 인상 예상
- 기존 정책이 점차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
- 관세 인하 및 철회 예상
-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확실함

6.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 속 세금 및 관세 이슈와 관련해 귀사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 불안정성(예: 판매 가격 불확실성)
- 비용 압박
- 공급망 차질(예: 국경간 물품 병목 현상)
- 장기적 비즈니스 계획 수립 역량
- 기타(직접 기재):

7. 조세 분쟁 발생 시 귀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 실제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 구조
- 증빙 서류 부족
- 세법 적용 오류
- 기타(직접 기재):

8. 귀사의 세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입니까?

- 번덕스러운 규제 환경
- 내부 프로세스 표준화 및 자동화 미비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역량 부족
- 세무 전문 인력의 디지털 스킬 부족
- 인력 감축

9.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Pillar 2 도입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결국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
- 여전히 불확실함
- 국가별 최저한세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
- 기타(직접 기재):



End Notes

1. Charles Darwin, Origin of Species, November 24, 1859
2. Deloitte, “Risk, uncertainty and opportunity in a changing tax landscape—2014 Asia Pacific Tax Complexity Survey”, 2014; Deloitte, “Shifting sands: risk and reform in uncertain times—2017 Asia Pacific Tax Complexity Survey”, 2017; Deloitte, “2021 Asia Pacific Tax Complexity Survey”, 2021
3. Deloitte, “[2025 Global Tax Policy Survey | Deloitte](#)”, 2025
4. OECD, “[Tax Policy Reforms 2025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September 11, 2025
5. Deloitte, “2021 Asia Pacific Tax Complexity Survey”, 2021
6. OECD, “[OECD Secretary-General Tax Report to G20 Leaders \(G20 South Africa, November 2025\) | OECD](#)”, November 22, 2025
7. Deloitte, “[2025 Global Tax Policy Survey | Deloitte](#)”, 2025
8. Deloitte, “[APAC CFO 2025 survey report | Deloitte Insights](#)”, 2025
9. Deloitte, “[2025 Tax Transformation Trends | Deloitte](#)”, 2025
10. Deloitte, “[2025 Tax Transformation Trends | Deloitte](#)”, 2025
11. Deloitte, “[APAC CFO 2025 survey report | Deloitte Insights](#)”, 2025
12. Deloitte, “[Finance Trends 2026 | Deloitte Global](#)”. 2026

Contact



Contact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세무자문부문

세무자문부문은 국내·외 조세 규정과 국제 조세 이슈 등을 분석하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이 세무 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자문부문은 기업 세무, 국내·외 투자 자문, 기업 인수·합병 자문, 이전가격 자문,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해외 파견 임직원 세무 및 과세 자문 등 다양한 세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지현 대표

세무자문부문리더

☎ 02 6676 2434

@ jikim@deloitte.com

우승수 본부장

M&A & International Tax

☎ 02 6676 2452

@ sungwoo@deloitte.com

이용찬 그룹장

이전가격그룹

☎ 02 6676 2828

@ yongclee@deloitte.com

인영수 파트너

이전가격그룹

☎ 02 6676 2448

@ cin@deloitte.com

유정곤 그룹장

Customs and Global Tax

☎ 02 6676 2561

@ jyou@deloitte.com

최승웅 본부장

기업세무 1본부

☎ 02 6676 2517

@ seungchoi@deloitte.com

임홍남 본부장

기업세무 2본부

☎ 02 6676 2336

@ honglim@deloitte.com

이신호 그룹장

International Tax Leader

☎ 02 6676 2375

@ shinlee@deloitte.com

AP Contacts

Tax & Legal

Eunice Kuo
eunicekuo@deloitte.com

Tax & Legal

Christopher Roberge
chrisroberge@deloitte.com.hk

Indirect Tax

Richard Mackender
rilmackender@deloitte.com

International Tax/Pillar Two

Vicky Wang
vicwang@deloittecn.com.cn

M&A Tax

Amrish Shah
amrishshah@deloitte.com

Supply Chain

Sarah Chin
sachin@deloitte.com.hk

Tax Policy

Michael Nixon
michaelnixon@deloitte.com

Market Contacts

Australia

Meghan Speers
mspeers@deloitte.com.au

Bangladesh

Nurul Haque
nhaque@deloitte.com

Brunei

Dk HjH Siti Khadijah
skhadijah@deloitte.com

Cambodia

Kimsroy Chhiv
kchhiv@deloitte.com

China

Victor Li
vicli@deloittecn.com.cn

Hong Kong

Anthony Lau
antlau@deloitte.com.hk

India

Gokul Chaudhri
gchaudhri@deloitte.com

Indonesia

Lauwrenz John
jlauwrenz@deloitte.com

Japan

Fumiko Mizoguchi
fumiko.mizoguchi@tohatsu.co.jp

Macau

Raymond Tang
raytang@deloitte.com.hk

Malaysia

Kwang Gek Sim
kgsim@deloitte.com

Mauritius

Roopesh Dabeesingh
rdabeesingh@deloitte.com

Myanmar

Phyu Phyu Win
pwin@deloitte.com

New Zealand

Meghan Speers
mspeers@deloitte.com.au

Philippines

Carlo Navarro
canavarro@deloitte.com

Singapore

Rohan Solapurkar
rohans@deloitte.com

South Korea

Ji Hyun Kim
jikim@deloitte.com

Sri Lanka

Charmaine Tillekeratne
ctillekeratne@deloitte.com

Taiwan

Ming Chang
mingchang@deloitte.com.tw

Thailand





Michael Fiore
mfiore@deloitte.com

Vietnam

Minh Bui Tuan
mbui@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 채널 & 앱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AI 시대의 전략과 리스크, 산업별 핵심 이슈를 다룬 **분석 리포트**
-  소비심리지수·자동차 구매의향 등 실물경제의 향방을 보여주는 **Deloitte Index**
-  딜로이트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글로벌 행사의 현장을 담은 **영상 콘텐츠**
-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실행 인사이트를 담은 **고객 성공 사례**

카카오 채널

앱

 카카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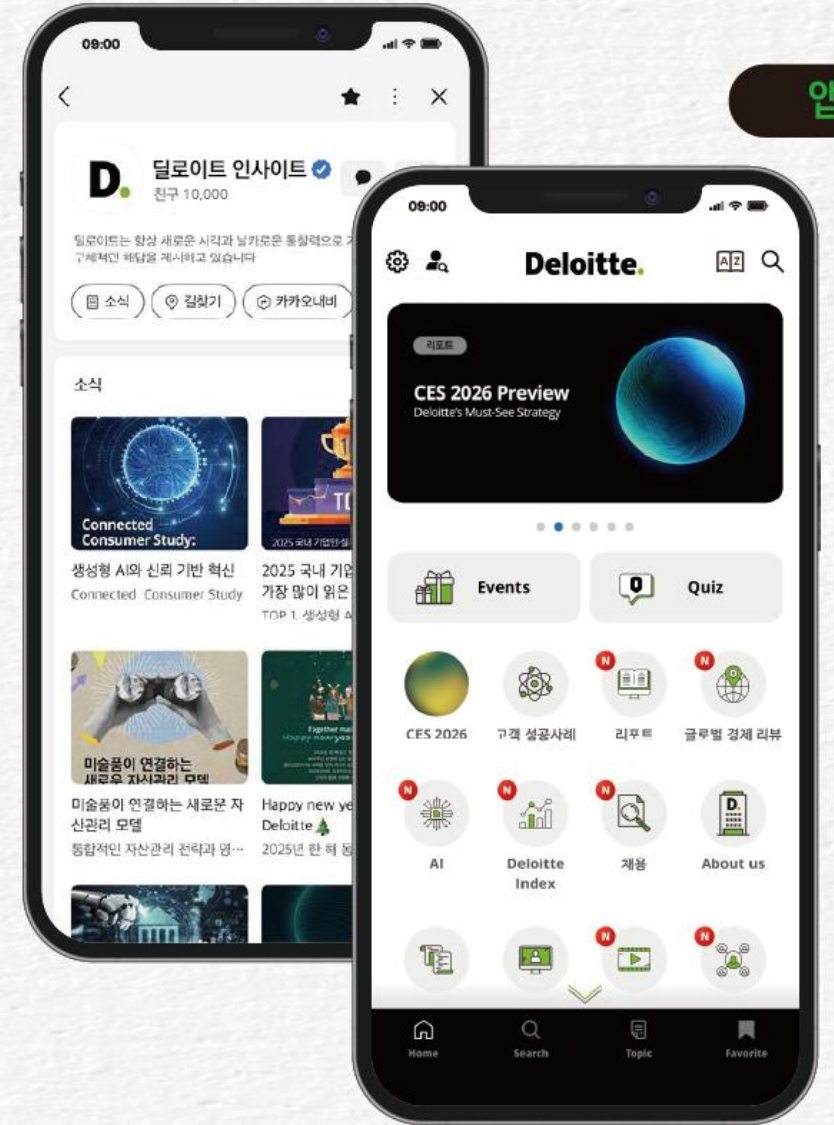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 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